초중고 학생부 내년부터 학부모 정보 뺀다

교육부 관리지침 개정안 예고
보존 기간 '준영구'로 상향
수상경력 학기당 1회로 제한

내년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부모 정보를 적지 않는다. 학생부 보존기간도 준영구로 늘어나고 수정이력도 학생 졸업 후 5년까지 보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학교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출제부터 평가까지 전과정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학생 답안지의 경우 보관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 항목을 삭제했다. 학부모 신원 노출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고교 학생부의 경우 수상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회(전체 6회)로 제한한다.

고교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내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적는다. 학생이 성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부에서는 수상경력과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이 기재사항에서 빠진다. 진로희망 분야는 선택적으로 기록한다.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학교 맞춤형 학생평가 관련 지침도 수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부 I 인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 II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로 상향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도 명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사와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도 검증에 참여한다.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관리권한 부여·변경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해외활동 실적, 부모 및 친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 등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의 기재를 막기 위해 학생부 기재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하도록 했다.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이른바 셀프-학생부도 교차점검을 통해 근절하기로 했다.

학교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출제부터 평가까지 보안을 강화하고 지필평가 학생 답안지의 경우 보관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되며 내년 3월 새 학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된다. /김형호 기자 khh@

17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도서관에서 한 시민이 책을 살펴보고 있다. 서구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 등을 위해 2층 종합자료실을 밤 10시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초중고 감사결과 오늘 실명 공개

최근 4년치…민감 이슈 많아

광주 초·중·고 감사결과가 18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실명으로 공개된다.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의 학교명 비공개 관행을 버리고, 감사결과에 학교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광주 교육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개청이래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1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4년치 광주 초중고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광주 초중고 감사결과다. 광주에는 국공립, 사립을 합쳐 초등학교 154곳, 중학교 90곳, 고교 70곳, 특수학교 5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80~90%에 해당하는 학교 감사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등 시교육청 산하기관 감사결과도 공개된다.

공개자료에는 학교별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감사처분 이행 여부 등이 비교적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금의 사적 사용 등 불투명한 회계 운영이 문제였다면, 일선 학교 감사 결과는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학부모에게 민감한 이슈를 망라하고 있어 적잖은 파문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이후 시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도서관 종합자료실이 새해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서구는 "평일 낮시간대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주민이나 직장인들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록도서관 종합자료실을 연장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운영시간은 휴관일(매달 둘째·넷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상록도서관은 어린이 대상 독서·놀이공간과 성인 대상 평생학습 공간으로 구성돼 하루 평균 이용객만 3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평일에는 오후 6시에 문을 닫으며, 직장인들은 주말이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인사청탁 근절 재천명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17일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1월 1일 일반직, 3월 1일 전문직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9월 정기인사에서 확인하셨듯이 안정을 기조로 혁신을 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그러면서 "보직추천위원회에서는 본청 과장, 직속기관장, 일부 교육장을 대상으로 2 배수 추천하게 된다. 본청 팀장은 해당 국장과 과장의 추천, 교육지원청은 해당 국장의 추천, 직속기관 부장은 직속기관장 추천을 최대한 존중해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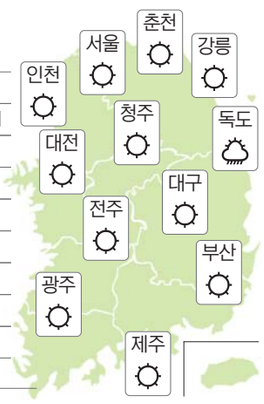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7:35	달뜸	14:20
해짐	17:23	달짐	02:23

낮엔 포근해요

오전에는 구름 많겠으나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1/10	보 성	맑음	-3/9
목 포	맑음	3/10	순 천	맑음	-1/11
여 수	맑음	2/10	영 광	맑음	0/10
나 주	맑음	-3/10	진 도	맑음	3/10
완 도	맑음	2/11	전 주	맑음	0/9
구 례	맑음	-3/9	군 산	맑음	0/9
강 진	맑음	-1/10	남 원	맑음	-3/9
해 남	맑음	-1/10	흑산도	맑음	6/11
장 성	맑음	-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	남서~서	1.0~2.0
	먼바다	서~북서	1.0~2.5	남서~서	1.0~2.5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먼바다(동)	서~북서	1.0~2.5	서~북서	1.0~2.0
	먼바다(서)	서~북서	1.5~3.0	서~북서	1.5~2.5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23	10:12
	15:54	22:25
여수	11:30	05:40
	--:--	17:52

◇주간 날씨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1/13	5/11	5/14	5/10	2/8	-2/6	-2/6

광주·전남 시민단체 '혁신도시 악취 저감' 토론회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축사 등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광주환경연합·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혁신도시노조협의회는 "19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강당에서 '혁신도시 축산·퇴비 악취 저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대기환경·악취 전문가와 나주시 공무원,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인화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지역 악취 제거방안과 관련 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업자가 악취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박선경 나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나주시의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악취 대응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김용희 기자 kimyh@

일부 초콜릿 카페인 함량 어린이 하루 기준치 초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 하루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만3~5세 어린이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44㎎)을 초과했으며, 4개 제품은 만 3~5세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만 6~8세 어린이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63~66㎎)을 기준으로 할 경우, 카페인 함량이 절반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제품도 4개였다.

유형별로 다크 초콜릿(평균 22.8㎎)이 밀크초콜릿(평균 11.8㎎) 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롯데쇼핑(주)에서 판매하는 '시모아 다크초콜릿'(47.8㎎)이 가장 높았으며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과 롯데제과 '72%드림카카오'(35.7㎎)가 뒤를 이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